



대학들이여, 교육 투자 아끼지 마라

이 인 철 |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

지난 해 우연히 우리 나라의 박사 학위 소지자에 대한 통계를 접할 기회가 있었다. '21C 지식기반 사회 대비 고등인력양성 통계'라는 제목의 이 교육부의 자료를 들여다 보면 박사 학위 소지자에 대한 통계는 물론 고등인력 배출현황, 대학원 설치, 학술지원사업, 등록금 현황, 연구논문 국제비교 등 웬만한 내용은 대충 들어 있다.

그 중에서도 내 눈길을 끈 것이 바로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숫자가 한 해에 1805명이나 된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외국 박사 학위 취득자수가 과연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가늠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하루에 4.9명 꼴이었다. 외국 박사학위를 안고 김포 공항에 들어오는 사람이 일주일에 5명이나 된다는 사실은 놀라웠다. 국내외에서 배출되는 박사 수가 많다는 사실보다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도 제대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시간 강사 등으로 전전하며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름대로 온갖 어려움을 이겨 내고 얻어낸 '박사 학위' 이지만 국내의 현실은 너무 냉엄한 것 같다. 유학을 떠날 때는 모두 청운의 꿈을 안고 떠났지만 귀국 뒤 겪는 한국 사회의 '높은 벽'을 접하고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학자들이 적지 않다.

'박사 실업'이란 주제로 다뤄 보면 좋은 기사 소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취재에 들어갔다. 그러나 창원대 컴퓨터공학과 우용태 교수가 개인적으로 박사 학위 소지자를 위한 대학 연구소 취업 안내 사이트(<http://dblab.changwon.ac.kr>)를 운영한다는 말을 들었다. 창원으로 내려가 우 교수를 만났다. 외국에서 공부하던 친구에게 국내 대학의 취업 정보를 알려 주기 위해 시작한 이 사이트는 현재 가입자 수만도 3만오천 명에 이르고 박사 학위 소지자는 2만여 명이나 된다고 한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부터 러시아, 유고 등 동유럽까지 세계 구석구석에서 유학하고 있는 미래의 학자들은 고국의 정보를 귀동냥하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드나든다는 이 사이트에서 학위를 취득했거나 취득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겪는 애환과 절규를 어렵잖이 접할 수 있다.

우 교수의 도움으로 이 사이트에 취재 의도를 밝히고 개인 경험 등을 보내 주면 고맙겠다는 글을 올렸더니 놀랍게도 하루에 20~30건씩의 e메일이 올라왔다. 기자가 발로 뛰어도 접하기 힘든 생생한 사례들이 많았다. 이런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해서 지난 해 9월 초 '박사 실업'이란 제목으로 3회 시리즈를 연재해 나름대로 고향력 실업의 문제를 잘 짚었다는 소리를 들었고, 이돈희(李敦熙) 당

시 교육부 장관은 내게 '인적자원개발회의'에 박사 실업 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상정해 해결책을 강구해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 대학들이 나름대로 발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세계적 수준의 대학과 비교하기에는 아직도 거리가 멀게 나타나는 등 교육 지표의 현주소는 부끄럽기만 하다.

대학 강의 3과목 중 한 과목은 전임 교수가 아닌 시간 강사가 가르치고, 전임 교수 1인당 학생수도 40명을 넘는 등 대학의 교육 여건이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 대학에서 시간 강사가 교양 과목과 전공 과목을 담당하는 비율이 '98년 32.6%에서 '99년 35.9%, 2000년 37.2% 등으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지난 해 교양 과목의 절반 이상인 52.5%를 시간 강사로 '때우고' 있다.

이는 대학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전임 교원을 채용하는 대신 강사료가 싼 시간 강사를 쓰기 때문이며 결과적으로 대학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박사 학위 취득자는 지난 해 국내 박사 6,558명, 외국 박사 1,805명을 합치면 한 해 8천여 명이 나 쏟아지는 셈이다. 5만여 명이 넘는 시간 강사들은 대학에 따라 시간당 평균 2만~2만7천 원의 형편 없는 강사료를 받고 대학을 전전한다. 시간 강사 강사료는 지난 해 시간당 평균 23,210원이며 국립대는 24,160원, 사립대 20,340원으로, 특히 사립대가 국립대에 비해 강사료에 인색하다. '98년 20,280원, '99년 23,520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거의 오르지 않은 것으로 '고급 인력 착취'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간 강사 K씨는 서울→경기→광주→전남→대구의 대학을 오가며 1주일에 25시간씩 강의를 강행군하지만, 월수입이라야 고작 150만 원도 안 되고 경비를 제하고 나면 손에 쥐는 것은 80만 원도 안 된다고 한다.

시간 강사들은 일용 잡급직으로 분류되어 신분 안정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의료보험, 직장에 비균 편성 등에서 아무런 혜택이 없다. 방학 때는 수입이 한푼도 없고 신용카드 하나 제대로 발급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이 강의하는 대학 도서관에서 책 한 권 마음대로 빌릴 수 없다. 명함만 '박사' 이지 사회적 대우는 거의 '무학'이나 다름 없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성공회대 등 일부 대학에서 시간 강사를 '외래 강사'로 호칭을 바꾸고 1년 단위로 계약해 방학 기간에도 약간의 연구비를 지급하고 있기는 하다.

젊은 학자들이 생활고 때문에 한창 연구할 30대에 시간 강사로 쫓기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인력 손실이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수학상인 '필드상'의 경우 40대 이상은 아예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만 보아도 젊은 시절의 왕성한 학문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짐작할 수 있다.

시간 강사와는 달리 일단 '교수 자리'의 문턱을 넘은 교수들은 그래도 형편이 조금은 나은 편이다. 정교수 월평균 수입은 438만 원, 부교수 360만 원, 조교수 313만 원, 전임 강사 263만 원으로 시간 강사 대우와 큰 차이가 있다.

시간 강사들의 열악한 처우는 대학의 재정 구조가 취약한 탓이기도 하지만 대학들이 처우를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원인이 더 크다.

한 시간 강사는 "대학들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육 문제를 보기보다는 당장 인건비를 아끼는 데 집착하는 것 같다."며 "교수들도 후배 학자들의 처우개선이나 인간적인 대우에 인색하고 '내가 언제 시간 강사를 했나' 할 정도로 인간적인 모멸감을 주는 경우가 많아 더 씩씩하다"고 털어놓았다.

더욱이 대학의 교수 채용 과정에서 자기 학교 출신자를 우대하고 학연·지연에 따라 이해를 달리

하는 그릇된 관행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동문 교수를 채용하는 이른바 동종교배(同種交配, inbreeding)는 상아탑의 패거리 의식과 학문의 후퇴만 있을 뿐이다. 본교 출신자 채용 비율이 서울대 95.2%, 고려대 62.6%, 연세대 80.9%나 되는 현실에서 다양한 학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이다.

또 여자 박사가 125,000명이나 배출되는 등 양적 팽창을 했지만 신규 입직 비율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37.7%로 남성 67.8%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여성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도 심각하다.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의 경우 해마다 적게는 100억 원, 많게는 1,000억 원까지 이월금을 남겨 이월금 총액이 수천억 원에 이르는 대학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들이 강사의 처우 개선 등 교육 투자를 외면하고 있다.

대학들의 교육 투자가 저조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나라 대학 재단의 법인전입금 비율은 4.76%에 불과하고 실험실습비의 지출 비율이 1%밖에 안 된다. 사립대 세입 중 법인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97년 6.7%, '98년 6%에서 지난 해에는 4.8%로 떨어진 반면,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99년 3.7%에서 2000년 3.8%로 국고 의존율은 높아지고 있다. 실험실습에 지출하는 비율도 국·공립대에 비해 사립대는 절반에도 못미쳐 국·공립대가 2.3%를 쓴 반면 사립대는 1%에 불과했다.

대학들의 무관심은 여기서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교내 식당 운영에서도 교육 수요자인 학생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좌석당 학생수는 9.7명인 데 비해 교직원 식당은 좌석당 2.4명으로 4배나 여유가 있다. 그래서 학생보다는 교직원 편의가 우선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수 확보율, 도서관 좌석, 도서 구입비 등 기초적인 교육 여건도 뒷걸음질하고 있다. 전임 교수 1인당 학생수가 '98년 36.6명에서 '99년 38.5명, 2000년 39.7명 등으로 점점 악화되는 반면, 교수 신규채용 비율은 '97년 9.1%, '98년 7%, '99년 5.8% 등으로 떨어졌다. 도서관 좌석당 학생 수도 '97년 5.3명, '98년 5.5명, '99년 5.6명, 2000년 5.7명 등으로 점점 비좁아지고 있다. 학생 6명이 한 자리를 나눠 쓰는 형편이다. 학생 1인당 도서 구입비는 '95년 64,030원, '97년 90,770원, '99년 97,020원으로 올랐다가 작년에 93,360원으로 다시 떨어지는 등 외국 대학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요즘은 대학마다 21세기 밀레니엄 대학을 이야기한다. 10년 뒤 세계 100대 대학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도 저마다 내놓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안팎을 둘러보면 아직도 우물안 개구리 식의 안목으로 대학 경영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들이 명실공히 세계적인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신진 학문 세대들이 마음놓고 연구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만들고 잘못된 대학 관행을 과감히 뜯어고치지 않으면 대학들의 희망은 요원할 뿐이다. 대학들의 각성과 분발을 기대해 본다. **대학**

이인철

고려대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아일보 편집부 사회부 기획팀 이슈부 기자로 교육인적자원부를 출입하고 있다. 저서로 『우리 아이 사회우등생 만들기』, 『하나의 시장, 하나의 물』이 있다.